

Paul Tesar

폴 테 자 (P a u l T e s a r)

폴 테자는 오스트리아 빈(Wien) 태생으로 빈 공대(Technische Universität Wien) 건축과를 거쳐, 1969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Fulbright Scholarship)로 미국에 건너와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4년간 모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 다시 1975년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 건축과(Department of Architecture)에서 디자인교육(Design Pedagogy), 건축유형학(Typology), 미학(Aesthetics), 버네쿨러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 등을 가르쳐 왔으며, 1992년에는 오스트리아 빈 공대 (Technische Universität Wien)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풍부하고 인상적인 강의로 유명한 그는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의 캐스 길버트 방문교수(Cass Gilbert Visiting Professor)로 초청되는 한편, RPI(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Troy) 및 그리스, 영국, 독일, 터키, 멕시코 등 유수대학의 방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한때는 오스트리아 빈(Wien) 시청계획과의 도시설계 컨설턴트로서 주거재개발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폴 테자의 연구, 강의 및 저서활동의 중심언어는 ‘공공예술로서의 건축 (Architecture as Social Art)’이며, 사회적 소통과 자연과 문화적 진화의 산물로서 바라보는 건축형태와 의미체계를 피력한다. 특히 그의 박사는문이자 저서인 ‘형태와 의미(Form and Sinn)’는 오스트리아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슈츠(Alfred Schütz)의 철학을 도입, 건축행위, 표현, 의미소통관계를 상호 주관적(Intersubjectivity)에 의한 사회적 함의체계라는 관점에서 건축유형학, 미학, 비평론의 개념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였다. 졸업생선정 최우수 교수(Alumni Distinguished Professor)인 그는 지난 2005년 학문적,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노스캐롤라이나주 최우수 교수상(UNC Board of Governors Award for Excellence)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담 | 장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 도시, 조경계획 및 설계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University of Minnesota) 건축조경대학원(College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의 석사(MLA)를 거쳐, 뉴욕 및 플로리다에서 선임디자이너로 일했다. 현재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립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환경설계전공 박사과정(Ph.D. in Design)에 있으며, 연구 및 강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다. 문화, 생태, 윤리적 패러다임으로서 도시경관미학이 관심분야이며, 신체와 언어경험을 통한 경관 의미체계 및 설계방법론을 연구 중이다.

폴 테자: 도시환경, 죽은 자들의 민주주의

대담, 정리 | 장혜정(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환경설계전공 박사과정)



장혜정

▶ 장혜정(이하 장): 먼저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유럽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오스트리아 빈(Wien)에서 나고, 자라셨고, 거기서 처음 건축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랜 역사도시 중의 하나인 빈(Wien)에서 성장하였던 것이 현재 교수님의 건축·도시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폴 테자(이하 테자): 네, 물론이죠. 어떻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환경은 학교교육이 주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를 '가르치고' 가꾸어주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유럽의 옛도시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해야겠어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에 접하도록 해주었으니까요. 문화환경으로, 빈(Wien)은 지금 유행하는 '다원적 문화'라는 용어가 있기 훨씬 전, 여러 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제국(The Habsburg Empire)의 수도였고, 거대한 다민족국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미 '다원적 문화의 도가니'였고, 물리환경으로서는 주요 역사적 시기들의 가시적 체현이었으며 일상 삶의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을 형성한 극적인 변화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중세, 바로크, 19세기 유럽 중심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 시기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세계관, 건축의 시각들, 도시공간 개념들 이상은 떠올릴 수 없습니다. 복합적이고 상반된 가치관과 세계관 내에서 풍부히 존재하는, 그런 다원적 환경의 개발/사회적 편익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 바쁘게 양산되는 일원적 환경의 문제점과 위험성 또한 보지 못하고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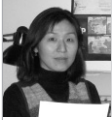
Paul Tesar: The Urban Environment as “The Democracy of the Dead.”

▶ **Hyejung Chang(Chang):** *I will start by asking about your experiences with architecture and cities in Europe. You were born, you grew up, and you first studied architecture in Vienna (Wien). Do you think that growing up in one of the old European capitals had any influence on how you think about architecture and urbanism today?*

▶▶ **Paul Tesar:** Oh yes, of course—how could it not? Environments “teach” and shape us, perhaps more profoundly than any school ever will. Looking back from where I am now, I have to say it was a great fortune to grow up in an old European city, because it naturally exposed me to a great variety of values and world views. As a cultural environment Vienna was a “multi-cultural melting pot,” because it was the capital of the Habsburg Empire, the center of a large multi-ethnic country for many centuries. As a physical environment, it was the visibility and presence of the major historical periods, and dramatic differences between them that shaped my mind and my body just in the course of everyday living. If we just take the three most important periods of urban development of many Central European cities—the Middle Ages, the Baroque period, and the 19th century—one could not think of three more different worldviews, visions of architecture, and conceptions of urban space. I am afraid if we do not recognize the developmental and social benefits of such multi-dimensional



Paul Tesar



▶ 장: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 빈(Wien)으로 돌아와 공대주거연구소(The institute for Housing at the Technical University)에서 도시재개발연구 및 시 도시계획부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데요. 건축과 도시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관해 당시 새롭게 제시한 비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테자: 도시재개발은 여러 유럽도시들의 큰 문제였고 현재도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많은 고(古) 건물이나 기념물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동안 파괴된 많은 도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들은 소위 재건이라는 명목하에서 또 다른 종류의 파괴행위로 대치되었을 뿐입니다. 초창기 재건은 도시고속도로와 스케일을 이탈한 오피스나 상가구조물 같은 식의 무모한 간섭행위들과 도시외곽의 방대한 중·고층 주거개발을 통해 도시파괴를 가중시켰고, 기존 도시의 짜임새와는 전혀 연계가 없었으며 인프라도 부족했었어요. 이런 종류의 개발들은 곧 여러 유럽도시들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내가 도시재개발정책과 도시설계 원칙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기 프로젝트에서였는데, 그때 수행한 작업들 중 하나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되돌릴만한 전략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처음으로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이미지(The image of city)'에 명기된 원칙들, 이를테면 구역(district), 가장자리(edge), 통로(path), 교차(node), 랜드마크(landmark) 등의 도시경험요소들을 활용하여 도시 내의 여러 지역에 이들 특성이나 요소들을 정의하고 강화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명백히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알게 된 것들이었고 내 조국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장: 다른 산업도시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한국인들 또한 고유의 전통적인 환경들에 대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근대화 및 신도시 건설만 강조해 왔는데요. 전통환경들이 고층 아파트빌딩과 획일적인 상가들로 대치되어서 모든 도시경관이 똑같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어떤 특별한 곳, 장소들을 이제는 기억하기 힘듭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사라진 것도 더 이상 물리적 환경과 연상되는 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5천 년 역사를 늘 말하곤 하는데, 이제 이런 역사는 교과서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일상 도시나 장소의 경험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서울 같은 도시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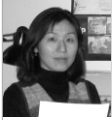
environments, rich in the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s of values and world views, we may not be able to see the shortcomings and dangers of the many of the one-dimensional environments we are so busy creating today.

► **Chang:** *After completing your studies in the US, you went back to Vienna for an academic position at the Institute for Housing at the Technical University, and you did research on urban renewal and consulting work for the planning department of the city. What was the new vision you brought into these projects in terms of social or cultural concerns in architecture and urbanism?*

►► **Tesar:** Urban renewal was and is a big problem in many European cities, simply because of the enormous number of old buildings and monuments, and also because so many cities were destroyed during the WWII.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that the destruction that happened during the war was replaced by another kind of destruction under the name of reconstruction. Much of early reconstruction was further destroying the cities through brutal interventions in the form of urban freeways, out-of-scale office and commercial structures, and vast medium-to high-rise housing developments at the edges of the city, which were completely disconnected from the existing fabric and lacking most infrastructures. These kinds of developments soon became the new problem areas of many European cities.

In my research and my work with the city in the early seventies I became interested in policies of urban renewal and principles of urban design. One of the things we did was to conduct an urban image study for the city by looking at assets, liabilities, and things we thought the city should be proud of, protect, and develop, and strategies to reverse the mistakes that were made. In the early seventies we used for the first time some of the principles Kevin Lynch articulated in *The Image of City*, such as understanding the experienced city as composed of districts, edges, paths, nodes, and landmarks, and made proposals to define and reinforce these characteristics and elements in many areas of the city. Many of these were clearly issues I became aware of while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 was pleased that I could make a contribution in my hometown.

► **Chang:** *Like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Koreans have emphasized urbanization and new construction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traditional environments we inherited. These environments are being replaced by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and uniform commercial*



▶▶ 테자: 네, 도시의 역사 그리고 과거와 뿌리와의 문화적 연계들은 일상적 삶에서 경험될 때만 살아 남는다는 데에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도시환경이 우리의 공유경험과 사고체계를 구성한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면들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위기에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원문화의 상호교류에 있어 성공여부는 결국 자국 문화의 힘과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란 것이 거의 이 맞인지 저 맞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균일하고 밋밋한 맛의 스프(soup)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많은 곳에서 한편에서는 국가적 혹은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자본의 팽창압력과 정치환경적 협력을 요구하면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신속히 변화하는 문화나 사회환경보다 더 타성에 젖기 쉽고, 견고하게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의 '아이덴티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최근의 도시설계 흐름-네오 트러디셔널(Neo traditional) 설계원칙-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현재의 혼란스런 여건에 대한 진정한 의식으로부터가 아닌 전통유럽도시나 미국의 좀 오래된 커뮤니티에 대한 존경 내지는 향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소위 '뉴-어바니즘'의 주역들은 사회·문화적 기제를 발현시키지 않고 피상적 수준에서 과거의 부적절한 모델이나 도시 유형들을 현대적 도시에 이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테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든지 고유한 토속적 환경의 구조와 본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의 토속환경은 급속히 팽창하는 신개발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소멸이 거의 자연자원의 멸종을 방불케 하며, 이것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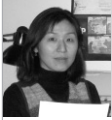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 질문은 정말 토속문화가 사라져가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위 뉴어바니즘이 의도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오랜 전통적 환경 이후에 패턴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뉴어바니즘이 유럽이 아닌 미국, 즉 이런 환경적 연속성이 없는 도시들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뉴어바니즘의 지지자들은 도시의 '진화과정'이 단순판료적인 계획원칙과 그 물리적 결과에



buildings, and all cityscapes now start to look alike. I can hardly remember the particular scenes and places in which I lived and grew up, and I am sure I am not unique in this respect, which is very sad. It seems to me that the memories of my childhood are all gone because they are no longer associated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 We used to speak about our 5000 year old history, but now this history exists mostly as a number in a textbook, not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cities and places, particularly in the city like Seoul.

►► **Tesar:** Yes, I think we agree that the history of a city, the cultural connection to our past and our roots, remains alive only if experienced in everyday living. Maybe even more importantly, the urban environment constitutes a shared experience and frame of reference, an externalized collective memory in material form, which reinforces our identity and cohesion as a society and culture. We are clearly in danger of losing this dimension today, in a more and more globalized world, and many people seem to think that this is unavoidable and perhaps even desirable. But the success of multi-cultural cross-fertilization will depend on the strength and identity of cultures, otherwise everything just will end up as a bland, homogenized, pseudo-cultural soup, largely indistinguishable from one place to another. But, I am afraid,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all around the globe today. In so many places we can observe a struggle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a sense of national and local identity on the one hand, and the forces of expanding markets of international capitalism as well as the need for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the other. I think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of our cities can and should play an important part on the “identity” side of that balance, because it has more inertia and is generally more resistant and stable than the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which seems to change more and more rapidly.

► **Chang:** *The recent wave toward neo-traditional principles in urban design claims to address some of the issues you mention. I cannot help but feel, however, that they are more inspired by respect and nostalgia for the old European cities and the older American communities, without really acknowledging the perplexing conditions of today. There is a growing criticism that the protagonists of so-called “New Urbanism” are trying to implant old and inappropriate models and urban typologies into contemporary cities at the surface level, without addressing the social and cultural substrate.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의해 붕괴되었다고 생각해서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되는 전통적 패턴들을 복원하고 재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 목표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방법론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아요. 내가 거부하게 느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정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본질상은 일차원적이라는 점입니다.

▶ 장: 그래도 건축가나 도시설계가들은 일상환경 내에서 이러한 문화적 실체나 역사적 층위들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 항상 수행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도시건축설계에 있어, 모더니즘 원리-이를테면 르코르비제(Le Corbuiser) 같은 건축가들이 주창한-에 기초한 일부 전후 개발(Postwar Development)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 입장이신데, 모더니즘 도시건축가나 도시설계가들이 자신들의 설계환경 속에 문화적 연속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열의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테자: 모더니즘건축이 지향하고 있는 뚜렷한 목표들 중의 하나가 건축을 고유의 문화적 흐름에서 끄집어내어 새로운 지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고 해도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적, 합리적 미학의 추구로서,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적이며 보통 삶과는 괴리되어 있지요. 반면 역사적으로 성장한 건축의 표현양식들은 진화된 미학과 건축·도시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시간을 거치며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추상성의 수준이 모더니스트들의 도시공간 비전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이지요. 즉 도시블록, 거리, 광장, 이웃들을 말끔히 없애고 기능적, 위생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기반한 도시계획원칙-합리적 환원주의-들로 바꾸어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도시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지요.

▶ 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모더니즘 개발형태는 세계의 곳곳에서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 유럽에서는 대부분 전후 이삼십 년간의 현상이었고 극복된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던 건축은 이런 비판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고, 그 지지자들은 문화적 손실을 전도하고 문화적 실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이론과 전략을 제시하려고 애쓰지 않았나요?

▶▶ 테자: 네, 표면상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장점 중 하나가 건축과 도시를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상기시켰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자기중심적 체계에 자치적 사고방식으로 문화적 분위기를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점이지요. 모더니즘은 매우 추상적이고, 대다수 사람들과 거의 상관없는, 다른 전제들, 논의들, 이론들로 인해 문화적 소통을 단절시켰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연속성에 관심 있는 척했지만, 사실상 그들의 프로젝트들은 고유



►► **Tesar:** For the reasons I mentioned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rve the structure and substance of inherited vernacular environments in any culture, because today more than ever they are threatened by rapidly expanding new development, and their obliteration is almost comparable with the extinction of a natural species: it is irreversible. But your question implies a concern for what we should do in the many places where they indeed have disappeared. One of the many things so-called “New Urbanism” is trying to do, is to build new developments patterned after these older traditional environment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New Urbanism started in the US, not in Europe, in other words in a country where many cities do not have this sense of environmental continuity. It appears that its proponents are trying to recover and to re-introduce the traditional patterns they regard as more human, because they feel that the “evolutionary process” has been disrupted by simplistic and bureaucratic planning principles and their physical consequences. I can agree with their goals, but not always with their methods. What bothers me most about them is perhaps that they somehow present a frozen and too perfect image, and that they again are essentially one-dimensional, both socially and architecturally.

► ***Chang:** But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have played, and should always play important roles in representing cultural substance and layers of history in the everyday environment. You seem to be rather critical of some of the post-war developments that were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principles of Modernism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uch as those articulated by Le Corbusier, for instance. Do you think that the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of Modernism had any ambition to appropriately reflect cultural continuity in the environments they created?*

►► **Tesar:** I don’t think that I am overstating my case if I say that one of the explicit aims of Modernism was to take architecture out of the flow of inherited culture and to put it on a new platform. It promoted a functionalist and rational aesthetic, largely abstract and therefore also elitist and separated from life, whereas the historically grown means of architectural expression represented an evolved aesthetic, a language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that people had a chance to get to know and understand through time. This level of abstraction certainly was also true for the modernist visions of urban space, which wiped away traditional urban typologies of blocks, streets, squares, and neighborhoods, and replaced them with the rational and reductionist principles of city planning that were based on functional, hygienic, and economic parameters, but



의 신빙성을 잃은 채, 금세 건축역사들을 가지고 노는 피상적 노름판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건축의 표현이란 것이 우리 인간들을 일부 의미심장한 사회·문화적 교감의 형태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보기엔 그저 대중 앞의 자위행위와 다름 없습니다(웃음).

▶ 장: 알겠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보고 싶어할 것은 아니겠군요. 그럼 무엇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 테자: 내 생각에 오늘날의 건축은 아직도 일부 이름난 전문가들의 개인적 예술형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을 예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법률이나 의학서비스처럼 고객을 상대로 하는 전문서비스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축을 예술로 보려고 한다면, 물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을 기술적, 관료적, 경제적 결정인자들 간의 교차부분 정도로 단순히 환원시킬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순수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하고 특별한 종류의 예술, 즉 공공공간을 점령하고 동시에 정의하는 실용적이고 협력적 예술로서 봐야 하겠지요. 다시 말해 나는 건축적 구조물들을 도시의 구성요소 내지는 집단적 도시경험의 성분으로 보고 있으며, 미적 자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 건축에 있어 의미의 문제 또한 그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지요. 건축의 의미란 디자이너의 의도나 해석적 선언들이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 건축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건축이론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친근하게 여기는 그들만의 인식체계로부터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장: 교수님은 여러 차례 건축을 사회적 공공예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환경분야와 관련시키기에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예술이라기보다는 계획의 문제이자 전문적 서비스이고, 또 환경조각이나 다른 시각예술, 대지조형 등의 분야가 사회적 공공예술이란 표현에 더 적절하다 여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측면에서 건축이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테자: 건축대상물이나 인공 도시환경은 설계가와 불특정 대중 사이의 지각과 의미 공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건축은 그 두 가지 의미영역을 연결합니다. 하나는 '만드는 의미', 즉 설계자가 자신들의 열정과 의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대상들의 의미'로서, 즉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미체계에서 그 건축대상들의 입장이 정의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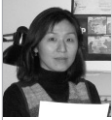
had very little to do with cities as we knew them.

► **Chang:** *Right, but while some of these questionable modernist developments are still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oday, in Europe it seems to have been mostly a phenomenon of the two or three decades after the war and has been overcome. Don't you think that post-modern architecture attempted to address such criticisms and that its proponents tried to propose theories and strategies to reverse cultural losses and recover cultural substance?*

►► **Tesar:** Yes, on the surface that seemed to be the case.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post-modernism was to remind us of architecture and cities as cultural artifacts. However,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what both Modernism and Post-modernism had in common was that they were to some extent self-referential, an autonomous way of thinking, and thus discontinuous from the culture that surrounded them. Modernism became discontinuous based on its different premises, arguments, and theories that were too abstract and largely irrelevant to the vast majority of people. Postmodernism pretended to be interested in cultural continuity, but in reality this post-modern project quickly deteriorated into superficial games with architectural history, which robbed it of its credibility. If architectural expression does not engage our fellow human beings in some meaningful form of social and cultural intercourse, then it becomes nothing but a form of public masturbation as far as I am concerned (laughter).

► **Chang:** *Okay, I guess most of us would not want to see that... What then could be a more desirable way of looking at architecture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 **Tesar:** I think that today architecture still tends to be interpreted as a personal and private art form by some of its most celebrated practitioners. One can question, of course, whether architecture should be seen as an art at all, or whether it is simply a professional service to a client, like law or medicine, for instance. If we can accept it as a form of "art," as I think we should, and if we don't want to reduce it to an intersection of technical, bureaucratic, and economic determinants, then certainly not as a "fine art" but as a unique and special kind of art, a practical and collaborative art that defines public space. In other words, I see architectural structures primarily as components of cities, as constituents of collective urban experience, not as autonomous aesthetic objects. If we can accept this definition, then the question of meaning in



것을 말합니다. 순수예술작품은 박물관, 갤러리 같은 곳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정보를 얻은 상태의 특정환경에서 지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로서, 건축이나 도시공간과는 다른 경우지요. 건축물은 자신의 관객을 선택하거나, 우리에게 경험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은 우리 모두와 대화를 나누는 '불가피한 예술'로서, 더 중요하게는 공공공간이나 공공빌딩 같은 우리의 공유공간이자 사회적 삶의 무대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회적' 예술이라고 부르는 정당한 이유이지요. 건축은 정의상 공공적, 사회적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행위로서, 공공장소에 놓여진 다른 예술작품들에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건축가나 도시 설계가들에게 있어 사회성과 예술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적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대개 집단적, 기능적, 과학적, 그리고 경제적 시각들과 많은 관련이 있고, 예술적 사고들은 주관적이고 표현적, 때로는 개인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표현행위로서 건축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 테자: 예술에서 과학의 분리는 문화의 역사로 볼 때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입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건축을 볼 때, 예술과 과학의 두 영역은 수천 년간 서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합리적·분석적 방법론들에 대한 강조의 결과로서 예술과 과학이 분리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단절이 특히 더 건축, 조경, 도시설계 분야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건축의 부분부분을 쪼개어내지 않아도 되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찾고자 했습니다. 설계방법론의 하나로서, 유형학(타이폴로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고, 유형학은 이런 분리를 거부하는 사실상의 통합적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유형학이 말하는 견지는, 우리는 이미 기존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설계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새로운 여건 안에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즉 다르게(바꾸어) 만드는 행위(an act of transformation). 유형학적 도시건축 접근의 또 다른 이점은 건축의 타입들을 개별 건축가의 개인적 발명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표현양식에서 건축타입들을 경험해 왔으며, 그것들은 언어를 통해 문화와 우리의 인지구조를 연결합니다. 건축타입과 그 변형들은 우리의 공유표현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다소 자기설명적이며 '자연스럽게' 의미심장해지는 것입니다.



architecture needs to be posed from that point of view as well, not from what a designer intends or some interpreter proclaims, but what buildings mea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eople who inhabit them, people who do not know about the intentions of architects, do not read architectural theory, but experience them from their own frame of reference, which is based on what they know and what they are familiar with.

► **Chang:** *You have referred several times to architecture as a social and public art. It seems strange to me to refer to the field of the built environment in that way, because, as you said - many people would argue that architecture is not really an art, but rather a matter of planning or professional service, and that public sculptures or objects of visual art, or even some “land art,” would appear to be more appropriate to this notion. Could you tell me how you see the differences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other arts in this social aspect?*

►► **Tesar:** Architectural objects or designed urban environments exist in the perceptual and semantic space between the designer on the one hand, and an unspecified public on the other. They connect two realms of meaning: the meaning of “making,” which designers experience in the form of their ambitions and intentions, and the meaning of the “things made,” as defined by their position in pre-existing systems of meaning, which exist in society. The work of fine art exists, and is predominantly experienced, in specialized environments, like museums or galleries, where people go voluntarily, attentively, and informed, which is not the case with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rchitecture does not select its audience, it forces itself upon us. It is the “unavoidable art” that speaks to all of us. Perhaps most importantly,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re the stage for our communal and social life, as it happens in public spaces and public buildings. That is why feel it is justified to call it a “social” art. It is by definition an expressive act that happens in a public and social context, which is not necessarily true for other works of art in the public realm.

► **Chang:** *To me,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social and the artistic dimension in architectural form is not easy for most architects and urban designers, because most social concerns have something to do with collective, functional, scientific, and economic perspectives, and artistic thinking is considered as subjective, expressive, and even personal. How could we generate*



▶ 장: 설계방법으로서의 타입이란 말이 매우 신선하게 들리는군요. 타입이란 것이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의미나 아이디어로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외양으로 대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 테자: 그래요, 타입이란 정말 기능적, 물질적, 미적인 패키지로서,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타입들은 언어의 범주에서처럼 일반화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대상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입은 자체로 아이디어들이지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된 것으로 문화적 선택과 시간에 따라 향상되고 정제된 것의 결과물입니다. 타입들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해석되고 변형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물질적 형식으로 지식과 이해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간접적인 문화지식이예요. 타입은 설계과정에서 출발점이지 종착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타입을 설계'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타입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여간, 과거세대의 지혜와 업적을 갖다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화에서 이 연속성의 측면은 우리 정체성과 뿌리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극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것은 계속 이용되고, 관련되고, 추가될 때 살아남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기억력이 없다면 그건 가없는 식물인간이겠죠. 우리 환경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리적 공공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집단적 기억들이 외형화된 것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문화존재로서 누구인지에 대한 집단 정체성을 강화해주지요. 건망증은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위험한 병이잖아요.

▶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전통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시대에서 전통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마지막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이 우리를 정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테자: 글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통은 우리가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식견과,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감각을 주죠. 유감스럽게도 전통이란 말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이나 계획가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전통이 없이 어떤 문화도 가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통은 문화적 건망증을 예방합니다. 전통을 도외시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와 과거세대들 간의 연계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있어 과거세대가 기여한 막대한 자산들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지케이 체스터튼(GK, Chesterton)이 전통을 "사자(死者)들의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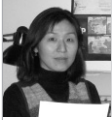
architectural form as an expressive and social act?

►► **Tesar:** The separation of science from the arts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cultures. If we look at architectur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these two realms tended to be integrated with one another for thousands of years. The consequence of the age of Enlightenment, and of our emphasis on rational and analytical methods, is that we have segregated art and science from each other, and I think this separation particularly has damaged the fields of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or a long time I have been searching for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does not chop architecture into parts. This is why I became interested in typology as a design method, because types refuse this separation and actually represent integration. Typology is a view that says that we have “solutions” that already exist and that design it is more a notion of adjusting known things to new circumstances—an act of transformation. The other advantage of a typological approach to architecture and urbanism is that types are not individualistic inventions by singular architects, but that they are social constructs that exist in the minds of people in society. We have experienced them in a variety of manifestations. Types link culture to our cognitive structure through language. Types and their variations are more or less self-explanatory and “naturally” meaningful, because they operate within a shared expressive system.

► **Chang:** *Your notion of types as a design method sounds very refreshing to me, because type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repetitive and material appearances, rather than meanings or ideas, as you seem to suggest.*

►► **Tesar:** Yes, types are indeed functional, material, and aesthetic “packages” that have a name. They exist as generalizations like the categories of language, not as real specific things. They are indeed ideas. They have evolved over time, as the result of cultural selection, and of improvement and refinement over time. Types should not be copied, but need to be interpreted and transformed in light of changed circumstances. They represen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already has taken on a material form. They are literally embodied cultural knowledge. They should be seen as the points of departure for a design process, but not as a destination. We cannot “design types,” we can only use them to design specific things.

Anyway, I think it is simply foolish to throw away the wisdom and accomplishments of the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전통은 모든 계층의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 선조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자(死者)들의 민주주의다. 전통은 그저 우연히 한세상 살고 있는 소수의 오만한 독재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단순히 출생의 이유로 인간이 차별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전통은 단순히 죽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죠!

▶ 장: 대화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테자: 날카롭고 지적인 질문들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㉞

플 테자의 주요 저서

1972-1973. "Organisationsformen und Strategien zur Erneuerung dicht besiedelter Gebiete Oserreichs" (Organizational Measures and Strategies for the Renewal of Densely Populated Areas of Austria) with R. Gieselmann, M. Wachberger, K. Becker, H. Grasberger. Federal Research Grant, Republic of Austria

1974-1975. "Ziele und Kriterien für ein Stadtgestaltungskonzept Wien" (Goals and Criteria for an Urban Design Concept for Vienna) with W. Holzbauer, T. Sieverts, E. Heiss, S. Frank. Department of City Planning, City of Vienna

1974. "Architektur als erlebter Weg" (Architecture as Experienced Path). *Der Aufbau*, 9/10, pp. 297-298, Vienna

1987. "Some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Form"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JAE)* Vol. 40 (2), Jubilee Issue, pp. 76-77, Washington

1990. "Wohnung, Gewohnheit, Architektur" (Dwelling, Habit, and Architecture) *Festschrift: Bewohnbare Architektur*, pp. 107-111, Vienna

1991. "The Other Side of Types" *Midgard*, Vol. 2, pp. 165-175, Minneapolis

1992. "Art or Design - Or Does It Matter?" *Design Statements*, Vol. 7(3), pp. 3-8 Chicago

1994. "The Aesthetics of Built Form" (Review of book by Alan Holg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American Scientist*, Vol. 82, pp. 294-295, Palo Alto

1998. "Architecture as Environment - Architecture as Habit" In *Architecture as Environment Exhibition*, pp.6-11. Brevard College, Brevard NC

1999-2000. "Design Matters" Monthly column o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pectator Magazine*, Raleigh, NC, June 1999-June 2000

2002. "Eleven Essays on Architecture (as if it were a part of life)" *The Spectator Articles*. Raleigh, N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2004. "Inquiry by Design" - Learning in the Studio setting (co-author with Meredith Davis) Chapter 14. In Lee, V. (ed.),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Inquiry*, pp. 234-249. Sterling, VA: Stylus Publishing LLC

2005. "The Relevance of Relevance" Student Publication, Vol. 31, pp.90-103, Raleigh: NC State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previous generations. The element of continuity is extremely important in every culture, if we do not want to lose our identity and our roots. Human memory is kept alive by constantly using, referring, and adding to it. Without our active memory we would be pathetic vegetables. I think the same holds true for our environment, because our environment is in a way our externalized social and collective memory that exists in physical and public space, where we all can experience it together. It reinforces our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who we are as a people and who we are as a culture. Amnesia is a dangerous disease in people as well as in environments.

► **Chang:** *Much of what you are talking about seems to have to do with the notion of tradi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make a concluding comment on how you see the role of tradition in our modern age, and its relation to the notion of progress. Isn't tradition holding us back?*

►► **Tesar:** Well, I don't think so. Quite on the contrary, it gives us a place to stand from which we can tackle the future, a sense of where we have been and where we might be going. Tradition unfortunately has become a negative term in the minds of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and planners, and yet no culture would ever have been possible without it. Tradition prevents cultural amnesia. Neglecting traditions robs what we do today of a connection to the past generations, and of the enormous contributions they have made to our life today. Nobody stated it better, in my opinion, than G.K. Chesterton, when he called it "the democracy of the dead." He said something like this:

"Tradition means giving votes to the most obscure of all classes, our ancestors. It is the democracy of the dead. Tradition refuses to submit to the small and arrogant oligarchy of those who merely happen to be walking about. All democrats object to men being disqualified by the accident of birth; tradition objects to their being disqualified by the accident of death."

I think he is right: ignoring tradition is a form of supreme arrogance!

► **Chang:**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talk with me.*

►► **Tesar:** Thank you for your perceptive and intelligent questions. It was a pleasure!